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께 소개해 온 ‘멧세의 전략적인 전개를 통한 문화의 비즈니스화’를 테마로 한 올해의 세계 창의도시 포럼이 이번달 15 일에 개최되었습니다. 포럼은 ‘멧세를 통한 창의도시의 새로운 연계를 구축하기 위한 가나자와 어젠다(행동계획)’를 채택하면서 대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창의도시·가나자와의 전략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몬트리올시, 상하이시, 서울시에서 멧세 담당자가 오셔서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가나자와시는 각 종 실천적인 전략을 추진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동의 발전으로 이어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전국 금박생산량의 약 99%를 차지하는 가나자와시에 에도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공예의 하나인 ‘가나자와 금박’의 기술과 문화를 전하는 ‘가나자와시립 야스에 금박공예관’이 이번달 5 일에 이전하여 신축 오픈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관은 1974 년에 가나자와시 기타야스에라는 곳에 개관했었는데, 이번에 관광객과 현역 금박장인이 많은 가나자와시 히가시야마로 이전했습니다.

이 관에서는 많은 금박을 이용해서 만든 병풍과 도예작품과 함께 가나자와 금박의 역사와 제작방법, 장인의 도구 등을 소개합니다. 또한 금박의 성질을 배우는 체험 코너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나자와 금박은 가나자와의 주요 전통산업의 하나인데, 근래에는 수요가 높은 불단의 판매 저조 등을 이유로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예관 3 층에는 금박 산지지원, 신기술 개발, 산학 연계와 판로개척 등을 지향하는 ‘가나자와 금박 기술진흥연구소’를 병설했습니다.

금박의 매력과 장인의 기술을 발신하는 신거점이 될 ‘가나자와시립 야스에 금박공예관’에 여러분도 꼭 한번 들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nazawa-museum.jp/kinpaku/>

앞으로도 크래프트 창의도시·가나자와는 문화와 비즈니스를 연결하기 위해, 그리고 창조의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 각 종 전략을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더없는 건승과 활약을 기원하며,
일본 가나자와시 창의도시추진 담당 드림



(가나자와 금박을 사용한 공예품)



(가나자와시립 야스에 금박공예관)